요약본

1950.6.25~1953.7.27

6·25 전쟁 1129 일

이중근(李重根)편저

1950. 6. 25-1953. 7. 27

6·25전쟁 1129일

이중근(李重根) 편저

1129day's Chronicle around the Korean War

by Lee, Joong Keun

常州大学山书馆
藏书章

우정문고

1950. 6. 25~1953. 7. 27

6·25전쟁 1129일 [요약본]

제 1 판 제 1 쇄 2014년 11월 10일

편저자 | 이중근
주 간 | 김명호
발행인 | 이중근
펴낸곳 | 우정문고

등록 | 2013년 7월 29일
주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120-23 부영빌딩
전화 | 02-3774-5500 팩스 | 02-3789-5333
http://www.booyoung.co.kr

ISBN 979-11-950890-7-9 03300 (비매품)

* 이 책의 내용 일부나 전부를 무단으로 전재 · 복제할 수 없습니다.

沈志华先生.

2015.5.18.

李建根上

머리말 · 006
얄타에서 6·25까지 · 010

1950

庚寅年 檀紀 4283

6월 —— 025
7월 —— 028
8월 —— 040
9월 —— 053
10월 —— 064
11월 —— 074
12월 —— 083

1951

辛卯年 檀紀 4284

1월 —— 095
2월 —— 106
3월 —— 116
4월 —— 126
5월 —— 135
6월 —— 144
7월 —— 152
8월 —— 161
9월 —— 170
10월 —— 180
11월 —— 190
12월 —— 200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

일러두기 · 022
굳어져 가는 휴전선 · 406

1952

壬辰年 檀紀 4285

1월 —— 209
2월 —— 218
3월 —— 225
4월 —— 234
5월 —— 242
6월 —— 252
7월 —— 264
8월 —— 277
9월 —— 289
10월 —— 300
11월 —— 311
12월 —— 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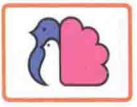
19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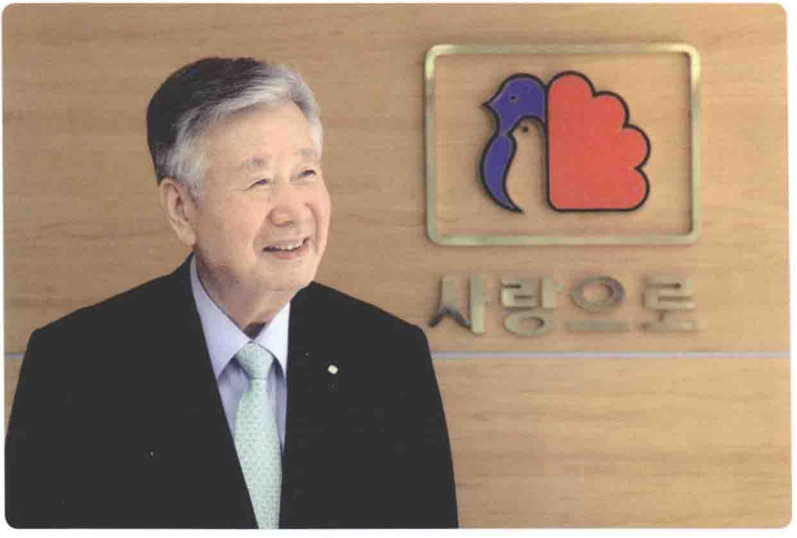
癸巳年 檀紀 4286

1월 —— 333
2월 —— 343
3월 —— 353
4월 —— 363
5월 —— 375
6월 —— 385
7월 —— 395

6·25전쟁 1129일

요약본





©최정동

이중근(李重根)

국민 주거문화를 선도해온 주택건설 전문인 부영(富榮)그룹의 창립자. 아호는 우정(宇庭). "교육재화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믿음 아래 1991년 순천 부영초등학교 신축 기증을 시작으로 전국 140여 곳의 대학과 초 · 중 · 고에 기숙사 · 도서관 · 체육관 등 교육 · 복지 시설을 기증했다. 2003년부터는 아 · 태 및 아프리카 등으로 영역을 확대, 16개국에 학교(600여 개교), 피아노(6만 대), 칠판(60만 개) 등을 기부하고 이들 국가에 한국식 졸업식과 함께 애국가를 비롯해 졸업식 노래, 고향의 봄, 아리랑 등 한국을 대표하는 노래를 전파 중이다.

교육에 대한 애착은 사회활동으로 이어져 건국대 이사장(1999~2001)을 역임했고 학교법인 우정학원 이사장, 우정교육문화재단 이사장, 경희대 아태국제대학원 운영재단이사 등을 맡고 있다. 2004년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4개 대학에서 명예학위를 받았다.

공군 복무(1961~67)를 소중히 여겨 공군인터넷전우회(ROKAFIS) 회장과 대한노인회 부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NUAC) 서울부의장 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내외에서 많은 유공훈장을 받았다.

주요 저서로 『임대주택정책론』 『한국주거문화사』 『광복 1775일』 외 다수의 논문이 있다.

6·25전쟁에 대한 전후세대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자 역사적 사실에 근접하여 책을 쓰게 되었다는 저자는 이 책이 과거를 정확히 인식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소통과 조율을 중시하고 있다.

1950. 6. 25-1953. 7. 27

6·25전쟁 1129일

이중근(李重根) 편저

1129day's Chronicle around the Korean War

by Lee, Joong Keun

우정문고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

머리말

이중근 李重根

지난 세기 중반에 발발한 6·25전쟁은 핵무기만 제한되었을 뿐 제3차 세계대전이나 다름없었다. 인류 역사상, 한 공간에서 전 국민과 25개국의 200만에 가까운 군인이 치열하게 치른 전쟁도 흔치 않다. 당시 세계의 독립국가 93개국 중에서 60개국이 남한에 병력이나 군수물자를 제공했고, 소련과 중국이 북한에 공군 및 지상군을,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는 의료 지원을 했다. 몽고와 동독도 추가 원조를 했다.

현재 한국은 6·25전쟁을 전환점으로 봐도 될 정도로 발전을 이룩했다. 이제는 그 안에 관류하는 역사 정신을 통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술자의 입장이나 생각이 사실로 각인되는 오류를 막기 위해 '당시에 있었던 그대로'를 후세에 알리는 것도 우리의 의무다.

『6 · 25전쟁 1129일』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242대의 탱크와 170대의 전투기를 앞세운 북한군이 무방비 상태의 남한에 전면 남침을 개시한 시점부터, 유엔 측과 공산 측이 2년 여에 걸친 회담 끝에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정전협정을 체결하기까지 1,129일간, 한반도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정성껏 수집하여 기록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와 절망의 끝자락에서 다시 일어선 위대한 역사의 승리다. '끝나지 않은 전쟁'의 실체를 확인해보는 과정은 이 시대의 요청이다. 피로써 겪은 전쟁을 소중한 문화의 에너지로 삼는 것이 미래를 여는 역사의 지혜다.

문화는 경제(經濟)의 산물(産物)이라고 확신한다. 이 책이 6·25전쟁에 대한 기초 자료로서 전쟁의 실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역사의 거울이 되기를 바란다.

반려자 나길순 님 동행해줘서 고마워요.

2013년 7월 27일

李重根

머리말 · 006

얄타에서 6·25까지 · 010

1950
庚寅年 檀紀 4283

6월 —— 025
7월 —— 028
8월 —— 040
9월 —— 053
10월 —— 064
11월 —— 074
12월 —— 083

1951
辛卯年 檀紀 4284

1월 —— 095
2월 —— 106
3월 —— 116
4월 —— 126
5월 —— 135
6월 —— 144
7월 —— 152
8월 —— 161
9월 —— 170
10월 —— 180
11월 —— 190
12월 —— 200

일러두기 · 022
굳어져 가는 휴전선 · 406

1952

壬辰年 檀紀 4285

1월 —— 209
2월 —— 218
3월 —— 225
4월 —— 234
5월 —— 242
6월 —— 252
7월 —— 264
8월 —— 277
9월 —— 289
10월 —— 300
11월 —— 311
12월 —— 322

1953

癸巳年 檀紀 4286

1월 —— 333
2월 —— 343
3월 —— 353
4월 —— 363
5월 —— 375
6월 —— 385
7월 —— 395

얄타에서 6·25까지

이중근 李重根

6·25전쟁 관계문서들이 공개되기 전까지,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미·영·소 3국 수뇌가 38선을 경계로 신탁통치안(信託統治案)을 합의했다고 믿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의 문서번호 「319-ABC File 1942~1948, No.387」과 케네디 정부 시절 국무장관을 지낸 딘 러스크(Dean Rusk)의 냉전비망록 『내가 본 대로』(*As I saw it*)에 따르면 38선은 1945년 8월 10일 전쟁부 정책과장 본스틸(Charles Bonesteel)과 함께 일본이 항복의사를 표명한 당일 자정 무렵 소련이 한반도 전역을 점령 급히 그은 군사적 저지선(沮止線)이었다. 소련도 미국의 의견을 인정하고 38선에서 진군을 멈췄다.

36년간 일제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우리 민족에게 38선은 운명의 선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이 그은 선이라 숙명처럼 받아들였던, 실제적인 고정선(固定線)이었다.

한반도의 38선 분할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 짓기 위한 카이로와 얄타, 포츠담 회담에서는 거론되지 않았다. 1943년 11월 23일, 카이로회담에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한국의 자유 독립"이 약속됐고, 이후 이를 재확인했을 뿐이다.

일본군의 무장해제(武裝解除)를 명분으로 남과 북에 진주한 미군과 소련군은 38선을 경계로 군정(軍政)을 실시했다. 8월 25일 민간인의 왕래가 차단되고 전화와 우체국, 철도운행도 금지됐다. 각 도청소재지를 우선 점령한 소련군은 8월 29일 북한 전역을 점령했다. 9월 6일 해주-서울 간의 전화가 단절된 것을 마지막으로 38선은 고정된 선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소련군은 38선을 임의로 들락거렸다. 개성에는 미군이 진주하기 직전까지 수시로 체류했다는 증언이 있고, 춘천에는 미군이 배치되던 9월 20일에도 소련군 정치장교들이 도청간부 연회에 모습을 나타냈다.

소련군은 북한에서 전국적으로 단일 정부를 수립하고자 했던 '건국준비위원회'(建國準備委員會)를 해체하고, 제25군사령관 치스차코프(Ivan Chistiakov) 대장이 설립한 '민정부'(Granzhdanskia Administratsiia)를 내세웠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